

부산동부보호관찰소

○ 매체 : 범죄예방신문(2026. 4. 20.)

○ 제목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노포마을회관 입구 담장 도색으로 마을에 안전과 생기 불어넣어

부산동부보호관찰소 노포마을회관 입구 담장 도색으로 마을에 안전과 생기 불어넣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관내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40여명이 참가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마을회관 입구 진입로 일대에서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노후 담장 도색'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랜 기간 방치되어 칠이 벗겨지고 낡은 노포마을회관 주변 담장을 화사하게 단장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자 기획하게 됐다.

특히 이번 활동은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직원과 소년 대상자는 물론,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강병기) 소속 보호관찰위원 및 2020행복나눔봉사회 소속 봉사 회원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하는 뜻깊은 민관 협력 봉사로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담장 도색 작업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박나예 운영위원이 속해있는 2020행복나눔봉사회(회장 : 박나예)에서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페인트 등 자재 일체를 제공하였으며, 박나예 회장을 비롯한 2020행복나눔봉사회 회원들은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와 봉사를 7년째 이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병기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이번 민관이 함께한 주민 밀착형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에 직접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보호관찰위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이번 담장 도색 작업이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 등 지역사회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